

# [세상사는 이야기] 우리 시대의 영웅

입력: 2025-02-21 17:22:16 수정: 2025-02-21 19:02:19



올해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해변과 내륙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산불은 큰 피해를 내고 오랫동안 계속됐다.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소방관들은 동시다발로 일어난 초대형 산불을 잡기도 전에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 이를 진화하느라 사투를 벌였다. 불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길에 차량을 버리고 대피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필자도 이러한 산불을 실제로 체험했다. 2009년에 로스앤젤레스 북쪽 앤젤레스국립수목공원에서 불이 나 한 달 동안 계속됐다. 서울시 전체에 육박하는 면적을 태웠는데 당시 주민들이 집을 비우고 대피했고 연기와 재가 로스앤젤레스 시내까지 날아들었다. 교환교수로 미국에 있던 필자가 사는 곳이 하필 그 국립공원 바로 밑이었다. 밤에 창밖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먼 데서 빨간 불이 보이는 정도였는데 그다음날은 하나의 산등성이를 넘어서 다가왔다. 며칠 동안 산등성이 하나씩을 넘더니 일주일쯤 지나자 바로 근처의 모든 산이 빨강게 돼 있었다. 영화에서 보던 인페르노, 연옥 지옥 같은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

대피하라는 얘기를 듣고 집을 나가는데 수많은 소방관들이 길 곳곳에서 검게 변한 옷을 입고 애쓰고 있었다. 일주일 정도 후 멀리서 보니 연기가 높이 버섯구름처럼 보였다. 진화를 못 해서 주민들이 사는 집들의 주변 산들을 소방관들이 미리 불을 놓아 완전히 태웠다. 그렇게 다가오는 산불의 방향을 바꿔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 몇 달 동안 창문도 열지 못했고 매일 청소해도 재가 계속 묻어나왔다. 몸에 안 좋은 것을 계속 많이 들이마시다 돌아온 것 같다.

그때 특이하다 본 것이 있다. 산불이 난곳에서 가깝건 멀건 많은 집들이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고맙습니다!"(You are my Heroes. Thank you!)라는 글을 곳곳에 붙여 놓았다. 어떤 집들은 지나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음료와 쿠키 등을 담아서 앞에 뒀다. 소방관을 마주치면 어린이나 부모나 손을 흔들었고, 일부는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몇 달 후에는 근처에 사고가 있었는데 수습하고 난 그 자리에도 추모하는 꽃들 외에 수습한 사람들을 'Heroes'라고 하는 글들이 있었다. 그전까지 나에게 영웅(Hero)이 누구냐고 물었으면 '성웅 이순신' '안중근 의사'... 그리고 망설였을 것이다. 요사이도 주변에 영웅에 대해 물으면 망설이다가 나와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에 주저하고 엄격한 것 같다.

도덕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영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 주위에 영웅이 적은 것 같다. 모든 면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들을 위해 자기 능력을 쓰고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1월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화재 때 혹시 남아 있을 사람을 찾기 위해 화염을 뚫고 뛰어들었다가 소방관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재난을 방지하고 사고 시 안전하게 조치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좀 더 존중하고 위하는 문화가 되기를 바라본다.

이번 로스앤젤레스 산불은 기후이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다른 나라만이 아니라 작년 우리나라는 역사적 폭염이 있었고 매해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 자주 올 것이라고 한다. 자연재해가 늘어나면 사고 수습과 안전 관리를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께 고마움과 존경을 드린다.

[김성균 서울대 교수·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